오늘의 리우 4 불편한 질병들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 참가하는 선수단은 물론 취재진, 관광객들은 각종 질병과 싸워야 한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이 지난 5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리우올림픽 감염병 예방 종합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세종 | 뉴시스

파상풍·장티푸스·지카까지… 올림픽 컨디션 '복불복' 위협

브라질로 향하는 과정은 멀고도 험하다. 경유나 급유 등을 위해 거치는 중간 기착지에서 보내는 시간을 제외하고도 하루 이상 꼬박 비행기 안에서 보내야 하는 길고 지루한 여정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다. 질병 얘기다.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출전을 앞둔 대한민국 선수단이 가장 공들이는 부분이 컨디션 관리다. 좋은 성적을 떠나 제 경기력이라도 발휘하려면 몸부터 챙겨야 한다. 하지만 브라질에선 이를 장담할 순 없다.

각종 풍토병에 다양한 질병 위협이 도사린다. 최근 주요 병원에는 예방접종 문의가 쇄도했다. 임원·선수단 이외에 취재진과 중계방송 스태프, 스폰서 관계자, 관광객 등 황열병~인플루엔자~A형 간염~장티푸스~파상풍 등의 예방주사를 맞으려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 주사를 나눠 맞을 시간적 여유도 없어 한꺼번에 접종했다가 겪는 몸살, 오한 등 후유증도 만만치 않다.

여기서 끝은 아니다. 기형아 출산 우려로 최대 화두로 떠오른 지카 바이러스는 예방약도 없다. 숱한 스타들이 '지카' 위협에 올림픽 출전을 포기한 상황에 "모기를 퇴치하고 성관계 등 신체접촉을 피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이야기만 나온다. 선수단은 안전교육과 함께 모기기피 효능이 있는 단복과 유니폼을 지급받고, 모기 기피제 및 세정제 등 방충·감염대비를 위한 다양한 용품을 받았으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결국 '지카'는 복불복"이란 웃을 수 없는 말도 나돈다. 대한체육회는 의무인력(의사·간호사·물리치료사)을 9명으로 증원 파견할 계획이다. 여기에 질병관리본부 조사관과 감염내과 전문의 지원도 따른다. 그렇지만 그저 (병에) 걸리지 않길 바라야 하는 답답한 처지가 바뀌진 않는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남자육상 높이뛰기 기대주 우상혁, 오사카선수권 우승

한국 남자 육상 높이뛰기 '기대주' 우상혁(20·서천군청)이 10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2016 오사카국제육상선수권대회' 결승에서 2m29cm를 기록하며 우승을 차지했다.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높이뛰기 출전 기준기록(2m29cm)을 충족한 그는 올림픽 자력진출에 성공했다.

편집 | 좌혜경 기자 hk7048@donga.com

나눔 Lotto 6/45 710 회 당첨번호 (추첨일 : 2016년 7월 9일)

1등 당첨번호						2등 보너스 번호
3	4	9	24	25	33	10

1등 총 당첨금 14,477,205,750

*1등 총 당첨금은 1등에 당첨된 총 당첨게임 기준이며, 당첨 게임수가 복수인 경우 균등 배분됩니다. 총 당첨금은 총 판매액의 50% 이상입니다.

등위	당첨게임 수		당첨금(원)	당첨금 내역
1등	6개 숫자일치	5	2,895,441,150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75%
2등	5개 숫자일치 + 2등 보너스일치	57	42,331,011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3등	5개 숫자일치	1,990	1,212,497 원	총 당첨금 중 4등과 5등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12.5%
4등	4개 숫자일치	102,058	50,000 원	50,000원
5등	3개 숫자일치	1,627,229	5,000 원	5,000원

*상기 당첨금은 1게임당 당첨금액 기준입니다. (세금 공제 전)

· 나눔로또 콜센터 : 지역없이 1588-6450 · 인터넷 당첨번호 안내 : www.nlotto.co.kr
당첨금 지급기간 : 해당 회차 지급개시일로 부터 1년까지

복권 구입시 유의사항
· 복권은 1인당 1회 10만원까지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청소년은 복권을 구매하거나 당첨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지나친 복권 구매는 중독의 폐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불법사행산업 감시신고센터 1855-0112 www.ngcc.go.kr

리우 가는 박태환, 메달도 걸어야지

해피엔딩을 위한 조건

전종목 출전? 주종목 집중 선택 필요
200m 13위, 400m 6위 메달 가능성
기대치 밑도는 기록…막판 분전 필요

우여곡절 끝에 리우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은 박태환이 진정한 '명예회복의 무대'에서 어떤 결실을 맺을까. 박태환이 4월 광주에서 열린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을 겸한 동아수영대회 남자 자유형 400m 결승에서 힘차게 물살을 가르고 있다. 광주 | 뉴시스

'마린보이' 박태환(27)이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 물살을 가른다.

2014년 금지약물 복용으로 국제수영연맹(FINA)의 선수자격정지 처분(1년 6개월)을 받은 지 2년여 만에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이미 한 차례 힘겨운 징계 과정을 극복한 그는 우여곡절 끝에 태극마크를 다시 달았다.

하지만 아직 웃을 단계는 아니다. 더욱 큰 산을 넘어야 한다. 다가올 올림픽에서 합리적인 결실을 내야 한다는 부담이다. 메달을 떠나 최소한의 실력조차 발휘하지 못한다면 지금까지보다 훨씬 큰 비난이 쇄도할 수 있다. 가장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최적의 환경에서 훈련해도 부족할 판에, 박태환은 진작 해결됐어야 할 불필요한 문제로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했다. 이제 채 30일도 남지 않았다. 그토록 갈구한 꿈의 무대에서 어떤 결실을 낼까.

●전 종목 출전, 과연 가능?

박태환은 4월 동아수영대회에서 남자 자유형 전 종목(100·200·400·1500m)에서 올림픽 A기준기록을 가뿐하게 통과했다. 그리고 '대표선수 자격'을 둘러싼 대한체육회와 지긋한 법적 공방이 모두 끝난 뒤 대한수영연맹의 추천으로 올림픽 경영종목 엔트리(8인)에 포함됐다.

FINA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FINA가 주최하거나 승인한 대회에서 이뤄진 기록을 기준으로 리우올림픽 티켓을 부여하고 있다. 여기에는 A기준기록과 B기준기록이 있는데, A기준기록 통과자 중 최대 2명이 자동 출전할 수 있고 후자에서는 'A기준기록 통과자가 없을 시' 가장 성적이 좋은 1명이 기회를 얻는다. 단, 세계랭킹과 국가별 안배 원칙에 따라 티켓이 주어지기에 무조건 올림픽 출전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일단 박태환은 전 종목 출전의 뜻을 전했다. 결국 진천선수촌에서 실낱같은 출전 희망을 걸고 훈련하던 남자 자유형 B기준기록 통과 선수들이 떠났다. 체육계는 '선택과 집중'을 언급한다. 모든 종목에서 제 역량을 발휘할 수 없다면 주 종목에 매진하라는 의미다. 박태환의 주 종목은 200, 400m인데, 여기서도 400m에 좀 더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런데 이 또한 쉽지 않은 문제다. 4종목 모두 나서겠다고 한 뒤 정작 본 무대에서 발을 빼면 박태환의 출전이 허용되면서 올림픽의 꿈을 완전히 잃어버린 후배 선수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수영인은 "전 종목 출전신청은 박태환의 당연한 권리다. 하지만 문제는 한 종목이라도 포기했을 때다. 규정을 벗어난 건 아니지만 도의적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기록은 과연 어떻게?

동아수영대회를 기준으로 한 박태환의 기록은 어떨까. 100m 48.91초는 세계랭킹 51위로 입상권과 굉장히 거리가 멀다. 15분 10초95에 터치패드를 찍은 1500m에서도 전체 47위가 나왔다. 그나마 메인 종목들의 상황은 좀 낫다. 1분46초31의 200m 13위, 3분44초26의 400m 6위다.

그런데 던컨 제임스 토드 코치(호주)의 지도 속에 호주 캐언즈에서 집중강화훈련을 진행 중인 박태환의 현재 페이스는 아직 가늠하기 어렵다. 몸 상태는 나쁘지 않다는 것이 측근들의 전언이지만 기록은 만족할 수준이 아니다. 이달 초 브리즈번에서 열린 호주수영 그랑프리 자유형 전 종목에서도 기대치를 밑도는 결과를 받았다. 동아수영대회 때보다 훨씬 저조했다. 현지 병원에서 브라질 풍토병인 황열 예방접종을 받은 후유증이라는 분석도 있고, 거취가 명쾌하게 결정되지 않은 시점에 소화한 대회였다는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분발이 필요하다. 박태환은 14일 일시 귀국해 국내 일정을 소화한 뒤 마지막 담금질을 위해 17일 미국 올랜도로 출국한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국제복싱계의 보복·집안싸움…한국복싱, 68년 만에 올림픽 좌절

4년뒤 도쿄올림픽, 화합·단결 절실

절망을 넘어선 파국이다. 1948년 첫 출전 이후 꾸준히 올림픽을 누빈 한국복싱이 처참한 현실에 직면했다. 2000년 시드니 대회 '노 메달'에 이어 2004년 아테네에서 동메달 2개를 획득한 한국은 2008년 베이징에서 동메달 1개, 4년 전 런던 은메달 1개를 수확하며 점차 하락세를 걸었다. 신종훈이 9일(한국시간) 베네수엘라에서 끝난 '국제복싱협회(AIBA) 프로복싱/월드시리즈 복싱(WSB)' 올림픽 선발전을 4위로 마감하면서 2016리우데자네이루올림픽에 결국 단 1명의 출전자도 배출하지 못하게 됐다. 남자부도, 여자부도 전멸이다.

68년 만에 빚어진 참극이다. 솔직히 신종훈이 올림픽에 나서더라도 묘한 그림이 나올 뻔 했다. 대표팀 운영주체인 대한복싱협회와 신종훈은 오랜 시간 대립각을 세워온 굉장히 껄끄러운 '물과 기름'의 관계였다. AIBA는 '국내 대회에 나설 수 없다'는 계약조건을 어겼다는 이유로 신종훈에게 2014년 말 1년 6개월 선수자격정지 징계를 했는데, 이 때 협회는 선수를 살리려는 조치를 취하기보단 점차 영향력이 줄어드는 AIBA와의 관계개선에 초점을 두는 모습을 보였다. 많은 복싱인들은 "지난해 김호 AIBA 전 사무총장이 물러나고 김 전 총장 반대파가 협회 요직에 오른 뒤 여러 국내 선수들이 국제 복싱계로부터 보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잇단 판정시비 등 알고도 당하는 불이익에 손을 쓰지 못하는, 아니 전혀 쓸 수 없는 구조를 지적한 목소리다.

뿐만 아니라 협회는 신종훈에게 2014인천아시안게임 우승 포상금(1000만원)도 제때 지급하지 않아 양자간의 법적 소송도 진행됐다. 물론 신종훈 측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옳다고 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협회가 반대 목소리마저 품어주는 포용력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복싱계의 한 핵심 인사는 "협회의 주장도, 선수(신종훈)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단체(협회)보단 개인이 약자가 될 수 밖에 없다. 4년 뒤 도쿄올림픽에서 똑같은 설움을 겪지 않으려면 집안싸움이 아닌, 화합과 단결을 통해 보다 단단해져야 한다"고 꼬집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이소영, 루키 첫 우승 "신인왕도 잡는다"

데뷔 4개월만에 초정탄산수오픈 우승
"파5홀 위기서 집중력으로 풀어나갔다"

2016시즌 루키 이소영(19·롯데)과 투어 2년 차 박결(20·NH투자증권)에겐 우승이 간절했다. 이소영은 올해 '최대어'라는 평가를 들으며 프로로 데뷔했다. 그러나 꾸준한 활약에도 불구하고 우승이 없었다. 박결은 지난해 더 큰 관심을 받고 프로가 됐다. 2014 인천아시안게임 골프 여자개인전 금메달을 목에 건 뒤 프로가 됐기에 기대가 컸다. 그러나 박결은 지난해 26경기, 올해 14경기를 뛰면서 아직 우승과 인연을 맺지 못하고 있다.

이소영과 박결은 10일 강원도 평창군 용평리조트 버치힐골프장(파72)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 초정탄산수 용평리조트오픈(총상금 5억원·우승상금 1억원) 최종 3라운드에서 우승을 다퉜다. 8번홀까지 공동선두를 이루며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승부의 추가 기울기 시작한 건 9번홀. 집중력과 컨트롤이 승부를 갈랐다.

8번홀(파5)에서 이소영이 보기를 하며 박결에게 공동선두를 허용했다. 박결로서는 첫 우승의 기회가 더 가까이 다가온 셈. 그러나 9번홀(파4)에서 스스로 기회를 날렸다. 두 번째 샷이 그린 왼쪽 언덕을 맞고 떨어졌다. 세 번째 샷으로 공을 그린에 올렸지만, 파 퍼트를 놓쳤다. 보기를 적어낸 박결은 파로 막은 이소영에게 다시 단독선두를 내줬다. 앞선 홀에서 보기를 하며 공동선두를 허용했던 이소영은 한숨을 돌렸다.

이후부터 상황이 달라졌다. 여유를 되찾은 이소영은 자신감이 넘쳤고, 강한 집중력과 완벽한 컨트롤로 더 이상의 큰 실수를 막았다. 14번홀(파4)에서는 버디를 추가하며 2위 그룹과의 간격을 3타 차까지 벌려 놔 우승을 예고했다. 17번홀(파3)에서 보기가 있었지만, 우승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박결은 9번홀에서의 실수를 만회하려 했지만, 오히려 다른 실수(12번홀 보기)를 연발하며 추격권에서 멀어졌다. 이소영은 마지막 18번홀(파5)에서 파를 기록해 2타 차 우승(9언더파 207타)을 확정지었다. 박결은 이승현과 공동 2위(7언더파 209타)로 대회를 마쳤다.

루키 이소영(오른쪽)이 10일 강원도 평창군 용평리조트 버치힐 골프장에서 열린 KLPGA 투어 초정탄산수 용평리조트오픈에서 데뷔 첫 우승을 차지했다. 18번홀 퍼트를 마친 뒤 우승 경쟁을 펼친 박결과 포옹하며 활짝 웃고 있는 이소영. 사진제공 | KLPGA

골프에서 경기에 큰 영향을 미치는 3요소가 있다. 집중력(Concentration)과 자신감(Confidence) 그리고 컨트롤(Control)이다. 이른바 '3C'다. 이 중 한 가지라도 흔들리면 실수가 나오게 된다. 집중력과 자신감에서 큰 차이가 없다고 가정할 때, 승부처에서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컨트롤이다. 컨트롤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클럽 선택이나 거리 체크, 공략방법과 같은 기술적인 컨트롤과 심리적 변화 상태를 말하는 마인드 컨트롤이다. 이날 경기에선 이소영이 조금 더 앞섰다.

이소영은 "(8번) 파5홀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한 것이 화가 났지만, 원래 계획대로 경기를 풀어 가려고 노력했다"며 위기에서 집중력을 발휘한 것을 우승의 원동력으로 꼽았다.

우승상금 1억원을 추가해 상금랭킹 23위에서 13위(2억2037만원)까지 순위를 끌어올렸고, 신인왕 경쟁에서는 1180점을 획득해 2위 이정은(20)과의 격차를 더 벌리면서 1위를 굳게 지켰다.

이소영은 3년 동안 국가대표(2013~2015년)를 지냈고 2014인천아시안게임 골프 여자단체전 은메달(박결·최혜진)을 따낸 유망주다. 메인스폰서로부터 2억5000만원의 연봉을 받았을 정도로 큰 기대를 받고 프로가 됐다.

데뷔 4개월 만에 우승 물꼬를 튼 이소영의 다음 목표는 신인왕을 향해 있다. 그는 "신인왕은 평생 한 번이다. 안심할 수 없지만 놓치고 싶지 않다. 하반기에도 우승을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주영로 기자 na1872@donga.com